



Part 2

마약류별 일반현황

1절 아편, 헤로인

2절 코카인

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 향정물질[N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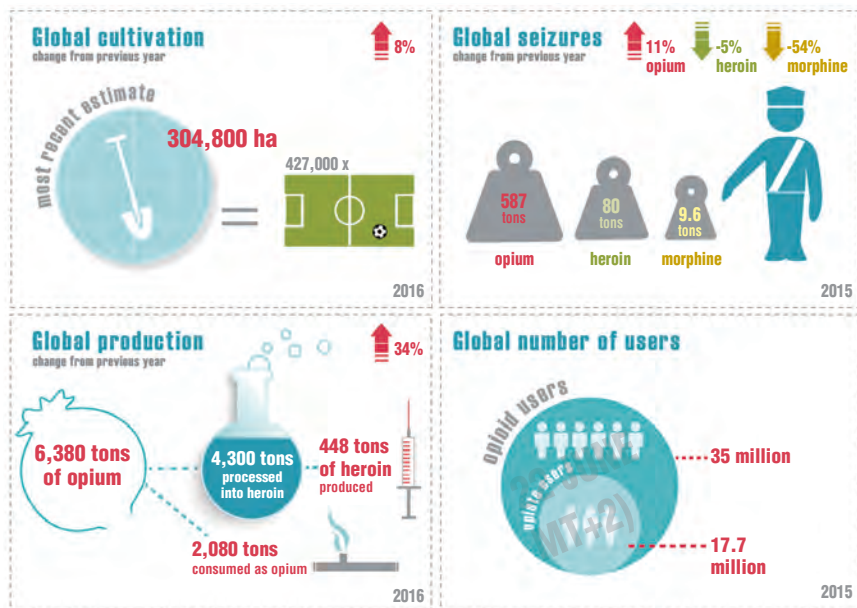
4절 대 마

제1절 아편, 헤로인¹⁾

1. 전 세계 통계 개요

- 양귀비는 50여 개국에서 불법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2016년 전 세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304,800ha이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01,000ha로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함
※ 미얀마, 멕시코, 라오스의 양귀비 재배면적이 2015년도에는 측정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측정되지 않음
- 2016년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은 약 6,380톤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남·서부 지역의 흉작이 회복되어 아프가니스탄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14년 보다 약 20% 감소한 수준임

[그림 2-1] 아편 및 헤로인 관련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1) UNODC, "MARKET ANALYSIS OF PLANT-BASED DRUGS", WORLD DRUG REPORT, vol.3, 2017

[표 2-1]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

(단위: 헥타르)

연도별 국가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남아시아										
황금의 초승달지대	아프가니스탄	157,000	123,000	123,000	131,000	154,000	209,000	224,000	183,000	201,000
	파키스탄	1,909	1,779	1,721	362	382	493	217	372	130
소계		158,909	124,779	124,721	131,362	154,382	209,493	224,217	183,372	201,130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	라오스	1,600	1,900	3,000	4,100	6,800	3,900	6,200	5,700	
	미얀마	28,500	31,700	38,100	43,600	51,000	57,800	57,600	55,500	
	태국	228	211	289	289	209	265			
소계		30,388	33,811	41,389	47,989	58,009	61,965	64,065	61,465	
중남미										
콜롬비아		394	356	341	338	313	298	387	595	
멕시코		15,000	19,500	14,000	12,000	10,500	11,000	17,000	26,100	
소계		15,394	19,856	14,341	12,338	10,813	11,298	17,387	26,695	
기타국가들		8,312	7,489	10,211	15,811	11,691	12,535	11,040	9,960	103,620
합계		213,003	185,935	190,662	207,500	234,895	295,291	316,709	281,492	304,75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표 2-2] 세계 아편 생산(추정)량

(단위: 톤)

연도별 국가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남아시아										
황금의 초승달지대	아프가니스탄	5,900	4,000	3,600	5,800	3,700	5,500	6,400	3,300	4,800
	파키스탄	48	44	43	9	9	12	5	9	3
소계		5,948	4,044	3,643	5,809	3,709	5,512	6,405	3,309	4,803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	라오스	10	11	18	25	41	23	92		
	미얀마	410	330	580	610	690	870	670	647	
	태국	5	3	5	6	3	4			
소계		425	344	603	641	734	897	766	781	
중남미										
콜롬비아		10	9	8	8	8	11	12	17	
멕시코		325	425	300	250	220	225	360	499	
소계		335	434	308	258	228	236	372	516	
기타국가들		133	131	176	275	160	165	189	165	1,573
합계		6,841	4,953	4,730	6,983	4,831	6,810	7,732	4,771	6,376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2. 소비(남용) 동향

- UNODC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아편류(opiates)²⁾ 및 처방용 아편 남용자 수는 3,510만 명이고, 그 중 아편, 모르핀, 헤로인을 포함한 아편류 남용자 수는 전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약 0.4%인 1,770만 명으로, 2014년 1,730만 명보다 약간 증가함
- 지난 10년 동안 북미 지역의 헤로인 및 펜타닐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중·서유럽 지역의 남용자 수도 최근 증가함
- 아프리카 지역은 남부 루트를 통한 아편류 밀거래의 증가로 아편유사제(opioids)³⁾ 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1998년에서 2015년 사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전체 아편류 남용이 감소함

3. 생산 동향

- 2016년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면적은 201,000ha로 전 세계 재배면적의 2/3에 달하며 전년 재배면적인 183,000ha 보다 10% 증가하였고, 같은 해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75%인 4,800톤에 달함
- 2016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아편 6,376톤 중 4,296톤이 헤로인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 448톤의 헤로인이 제조되었음

2) 아편유사제(opioids)의 일부로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 양귀비에서 추출된 다양한 제품을 말한다.
[UNODC, "EXECUTIVE SUMMARY", WORLD DRUG REPORT, vol.1, 2017, p33.]

3) 양귀비의 알칼로이드(질소를 포함한 염기성 유기화합물로 단일 물질의 명칭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광범위한 물질을 말함)를 부르는 일반적인 단어로,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를 말한다.
[UNODC, "EXECUTIVE SUMMARY", WORLD DRUG REPORT, vol.1, 2017,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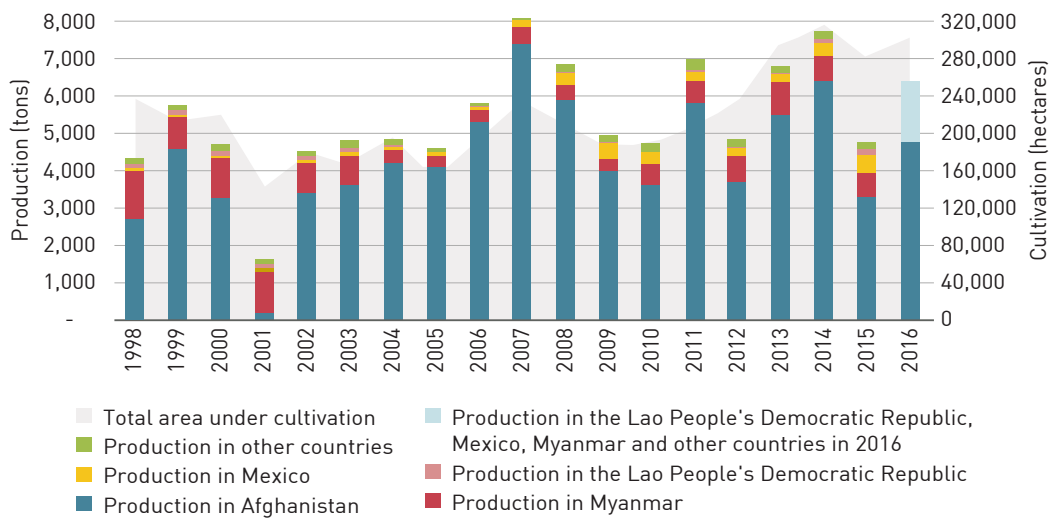
[표 2-3] 세계 아편 · 헤로인 생산량 (2009년~2016년)

(단위: 톤)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아편 생산량	4,953	4,730	6,983	4,831	6,810	7,723	4,770	6,376
헤로인으로 제조되지 않은 아편의 양	1,680	1,728	3,400	1,850	2,600	2,450	1,360	2,080
헤로인으로 제조된 아편의 양	3,273	3,002	3,583	2,981	4,210	5,273	3,411	4,296
전체 헤로인 제조량	427	383	467	377	555	542	327	448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그림 2-2] 아편 생산 및 양귀비 재배면적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4. 밀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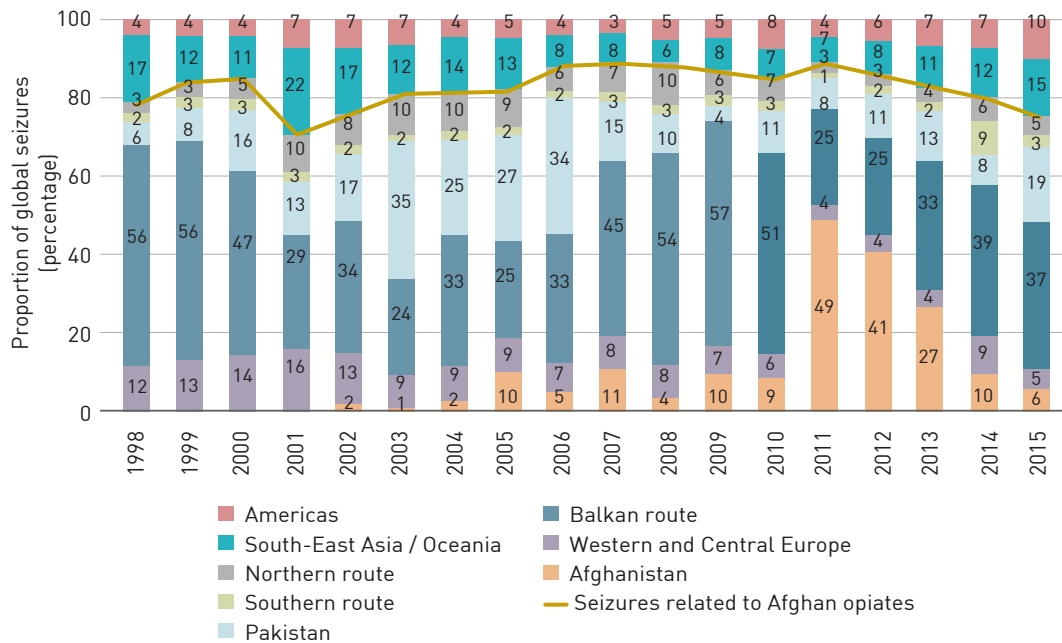
- 2015년 중동 및 서남아시아와 그 인근 지역에서 주요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영향으로 전 세계 아편류 압수량 중 아편 97%, 모르핀 94%, 헤로인 47%에 달하는 양이 압수됨
- 특히, 이란에서 전 세계 아편류 압수량 중 거의 절반인 49%에 달하는 양이 압수되었고, 파키스탄에서 16%, 중국, 터키, 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6%, 미국에서 5%에 달하는 양이 압수됨
- 아프가니스탄산(産) 아편류의 밀수 경로는 이란과 터키를 경유하여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칸 루트(Balkan Route)’, 남아시아, 걸프, 중동, 아프리카 및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남부 루트(Southern Route)’,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 러시아 연방으로 이동하는 ‘북부 루트(Northern Route)’가 있고, 2015년 위 경로에서 헤로인과 모르핀의 압수량은 전 세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의 75%를 차지함
- 전 세계 아편류와 관련된 밀매는 주로 발칸 루트에서 발생하고 있고, 2015년 전 세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의 37%인 34톤이 발칸 루트 지역에서 압수되었고, 그 중 이란에서 24.4톤, 터키에서 8.3톤이 각각 압수됨
- 2015년 발칸 루트 지역에서의 압수량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EU) 국가로 향하던 난민들이 터키에서 봉쇄되는 등 보안이 강화되자 최근에 터키를 우회하여 코카서스 지역을 경유하는 대체 경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임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아편 생산량이 30% 증가하고, 같은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아편류인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은 7.1톤에서 13.3톤으로 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얀마에서 생산된 아편류가 2010년 전 세계 생산량의 7%에서 2015년 15%로 증가하여 주변 국가로 공급되었기 때문임
- 2011년 이후로 미주 지역의 헤로인과 모르핀의 압수량은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북미 지역의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은 지난 5년 동안 4.4톤에서 8톤으로 80%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2-3] 세계 헤로인 이동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그림 2-4] 1998년~2015년 주요 밀수경로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비율 분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표 2-4]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검거인원	0	0	18	5	0	4	0	0	3	1
압수량(g)	0	0	1,914	81	0	3.5	0	0	4.54	0.03

- 1990년대 초반까지 헤로인 밀수의 경우,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었음
- 다만,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헤로인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국인 투약사범은 최근 10여 년 동안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주요 헤로인 밀수사건

- 2006. 6.경 홍콩인이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바지주머니에 은닉하고 홍콩 첵랍콕 공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콘돔 4덩어리는 향문 안에, 콘돔 2덩어리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각각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7.경 대만인 3명이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향문 안에 5~6개씩 은닉하여 캄보디아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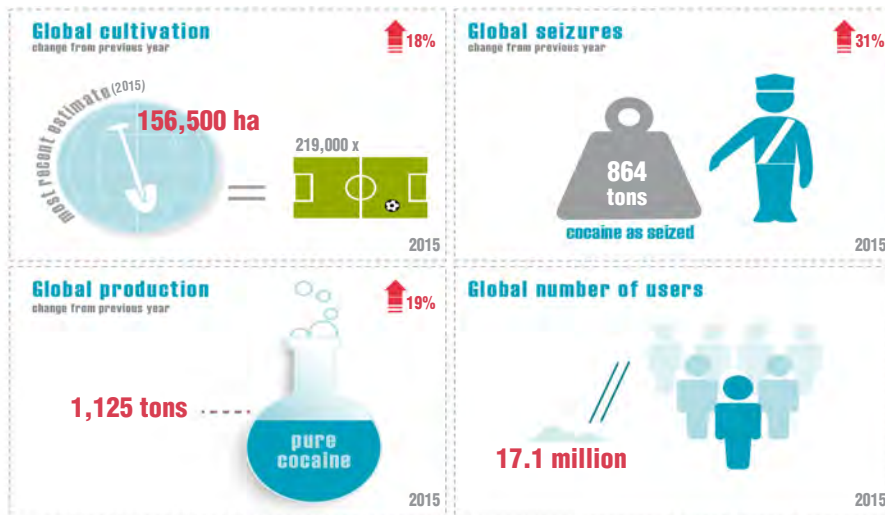
-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인도로부터 헤로인 334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8.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98g 및 해시시 3.57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1.경 베트남인 3명이 헤로인 7.7g을 콘돔에 넣어 입 속에 은닉한 채 베트남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의정부지검)
- 2015. 6.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65g을 밀수입 (부산지검)
- 2015. 11.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2.54g을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2016. 12.경 미국인이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03g을 밀수입 (대전지검)

제2절 코카인⁴⁾

1. 전 세계 통계 개요

- 2015년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 수는 1,7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코카 재배량은 200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콜롬비아의 영향으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약 30% 증가하여 2011년 수준을 기록함
- 2015년 전 세계 코카인 제조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125톤으로 2013년 이후 25% 증가하여 2008년 수준을 기록함
- 2015년 코카인 밀매 경유지인 아프리카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1.2톤으로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이고, 아시아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1.7톤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오세아니아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이후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음

[그림 2-5] 코카인 관련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4) UNODC, "MARKET ANALYSIS OF PLANT-BASED DRUGS", WORLD DRUG REPORT, vol.3, 2017

2. 소비(남용) 동향

- 최근 몇 년 동안 코카인 남용자 수는 전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약 0.4%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북미 지역은 2015년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 수가 가장 많은 3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중·서유럽 지역이 20%,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이 17%를 각각 차지함
- 유럽 지역의 코카인 남용률은 2007년 최고치인 1.3%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코카인 남용률이 0.9%를 유지함으로써 안정화 단계로 판단됨

3. 생산 동향

- 2015년 코카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56,500ha이고,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코카 재배는 감소 추세였으나, 콜롬비아에서 코카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30% 증가하여 2011년 수준을 회복함
-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면적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0년 이후 58%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69,000ha를 기록하고, 2015년에는 96,000ha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코카인 가격의 상승으로 코카 재배가 대체작물 재배보다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임
- 페루의 코카 재배면적은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44% 증가했고, 코카인 가격 역시 상승하였으나 대체작물 개발과 집중적인 코카 재배 제거 노력으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페루의 코카 재배면적은 31% 감소한 42,900ha를 기록하였고 2015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40,300ha를 기록함
- 볼리비아도 페루와 비슷하게 대체작물 개발과 정부의 집중적인 코카 재배 제거 노력으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코카 재배면적은 35% 감소한 20,200ha를 기록함

- 2015년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1,125톤으로 2014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2013년 대비 25% 증가하여 최근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임

[표 2-5]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 (2006년~2015년)

(단위: 헥타르)

연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볼리비아	27,500	28,900	30,500	30,900	31,000	27,200	25,300	23,000	20,400	20,200
콜롬비아	78,000	99,000	81,000	73,000	62,000	64,000	48,000	48,000	69,000	96,000
페루	51,400	53,700	56,100	59,900	61,200	64,400	60,400	49,800	42,900	40,300
합계	156,900	181,600	167,600	163,800	154,200	155,600	133,700	120,800	132,300	156,50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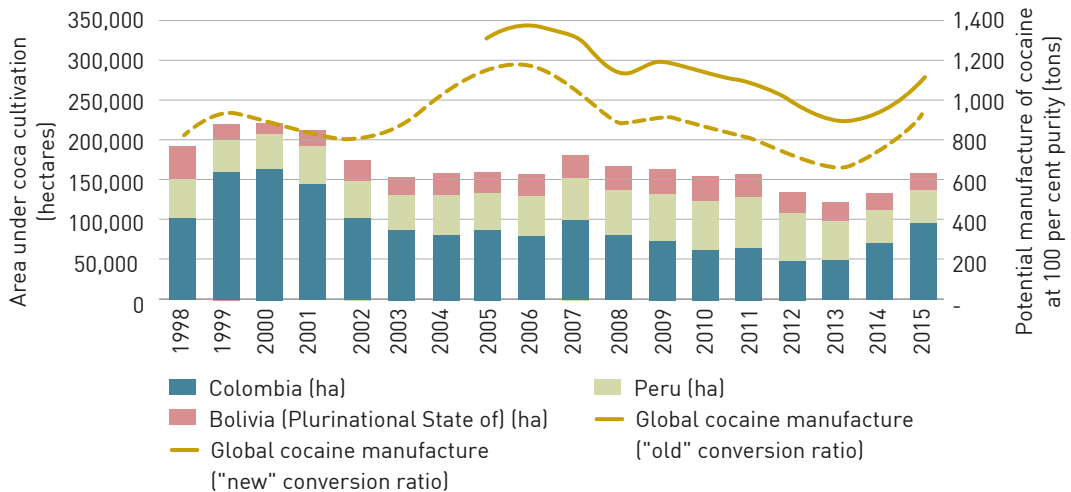
[표 2-6] 코카인 생산량 (2006년~2015년)

(단위: 톤)

연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볼리비아	94	104	113							
콜롬비아	809	683	471	488	424	384	333	290	442	646
페루	280	290	302							
합계 (舊 환산율)	1,183	1,077	886	920	862	815	738	662	746	937
합계 (新 환산율)	1,381	1,317	1,143	1,188	1,134	1,090	997	902	943	1,125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그림 2-6] 전 세계 코카인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4. 밀매 동향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총 153개 국가에서 코카인이 압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5년 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864톤임
- 2015년 미주 지역에서 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의 90%가 압수되었는데, 특히 남미 지역에서 61%를 기록하였으며, 중·서유럽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전 세계 압수량의 10%를 차지함
- 2015년 남미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526톤인데 콜롬비아의 압수량이 이 가운데 57%로 전 세계 압수량의 1/3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가 각각 12%를 차지함
-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유럽 지역으로 반입되는 코카인의 원산지는 콜롬비아산(産)이 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페루산(産)이 33%, 볼리비아산(産)이 2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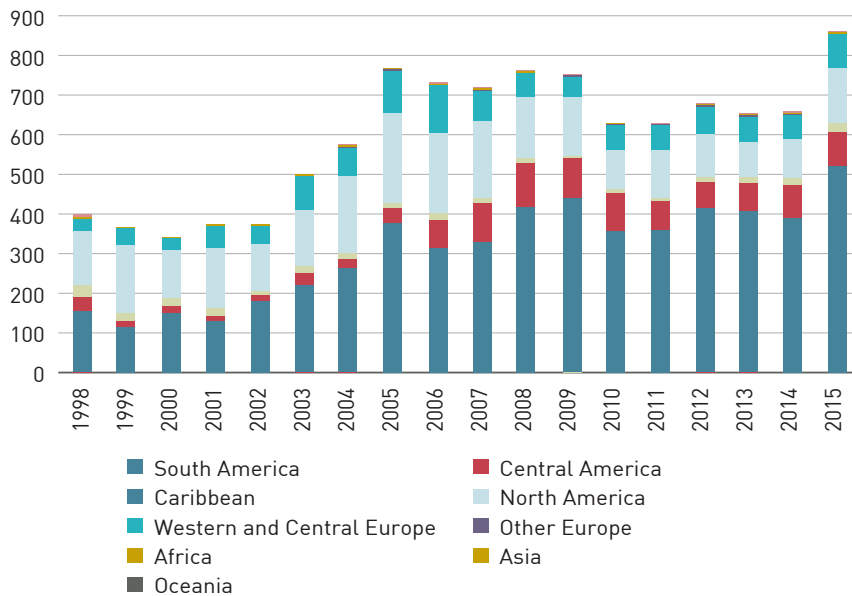
- 서아프리카 지역이 코카인 밀수의 경유지로 이용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1998년 0.8톤에서 2007년 5.5톤으로 증가했으나, 2010년 3.4톤, 2015년 1.2톤으로 감소함
-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중·서아프리카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83%를 차지하였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11%를 차지함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아시아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지역 전체의 56%를, 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이 40%를 각각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아시아 지역으로 코카인을 가장 많이 밀매한 국가는 브라질이고, 그 다음으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순임
- 오세아니아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1990년대 후반 0.1톤에서 2010년에 1.9톤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 0.8톤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 1.2톤으로 다시 증가함

[그림 2-7] 세계 코카인 이동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그림 2-8] 1998년~2015년 지역별 코카인 압수량 및 2015년 압수비율

**Distribution of seizures in 2015**

Oceania: 0.1%

Africa: 0.1%

Asia: 0.2%

Western and Central Europe: 10%

East and South-East Europe: 0.2%

Caribbean: 3%

Central America: 10%

North America: 16%

South America: 61%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표 2-7]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검거인원	4	7	3	0	4	3	8	5	4	6
압수량(g)	79	8,869	298	0	2,153	63,62	1,215	11	10	10,943

- 1988. 10.경 서울중앙지검이 미국에서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한 코카인 10g을 적발(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한 것을 필두로 1990. 2.경 부산동부지청이 코카인 150g을 밀매한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990. 9.경 서울중앙지검이 국제 코카인 밀수조직을 적발하여 코카인 976g을 압수하는 등 코카인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짐
- 코카인은 내국인들의 소비 사례보다는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되었음
- 2014년에는 우리 국민 3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5년에는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에는 유향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량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주요 코카인 밀수사건

- 2004. 4.~5.경 캐나다인이 홍콩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의 지시로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으로 밀수출 (수원지검)
- 2004. 11.경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3g을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06. 3.경 네덜란드인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프랑스를 경유,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을 밀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 (인천지검)
- 2007. 4.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3.2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8.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로부터 코카인 5.2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9.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로부터 코카인 3.6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9.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58.34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3.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 파나마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 코카인 2.1k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 (부산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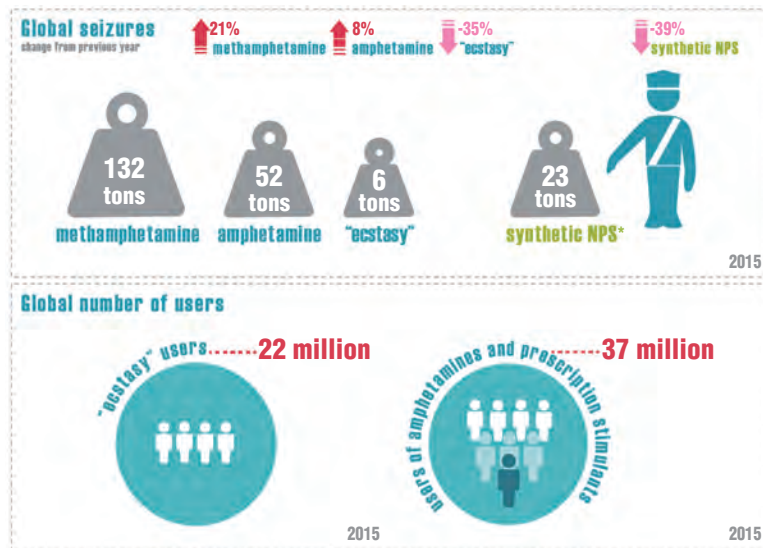
- ① 2013. 1.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로부터 코카인 약 9.72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성남지청), ② 2013. 3.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1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대전지검), ③ 2013. 1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18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3. 11.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3.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부천시청)
- ① 2014. 1.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4. 2.경 미국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약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4. 2.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7.8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부천시청)
- ① 2015. 10.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② 2015. 10.경 캐나다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5. 1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④ 2015. 12.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로부터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6. 4.경 독일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0.03g을 휴대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6. 9.경 미국인이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 6,400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6. 9.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6.96g을 휴대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6.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3.95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⑤ 2016. 10.경 캐나다인이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 4,478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 향정물질[NPS]⁵⁾

1. 전 세계 통계 개요

- 2015년 전 세계 ATS 압수량은 2010년(93톤) 대비 약 2배 증가한 191톤이고, 그 중 메트암페타민은 매년 ATS 압수량의 61~80%를 차지하고 있고, 암페타민은 20~32%, 엑스터시는 5%를 각각 차지함
- NPS 관련하여, 2014년 66개, 2015년 100개의 새로운 물질이 UNODC에 보고 되었고,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106개 국가 및 지역에서 보고된 NPS는 총 739 개에 달함
- 2016년 말까지 UNODC에 보고된 모든 NPS 중에서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가 전체의 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합성캐치논(Synthetic cathinones)이 19%, 펜에틸아민(Phenethylamines)이 18%를 각각 차지함

[그림 2-9] ATS 및 NPS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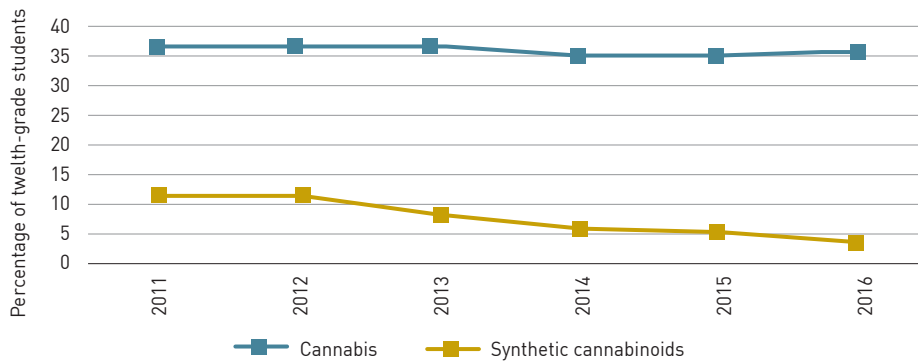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5) UNODC, "MARKET ANALYSIS OF SYNTHETIC DRUGS", WORLD DRUG REPORT, vol.4, 2017

2. 소비(남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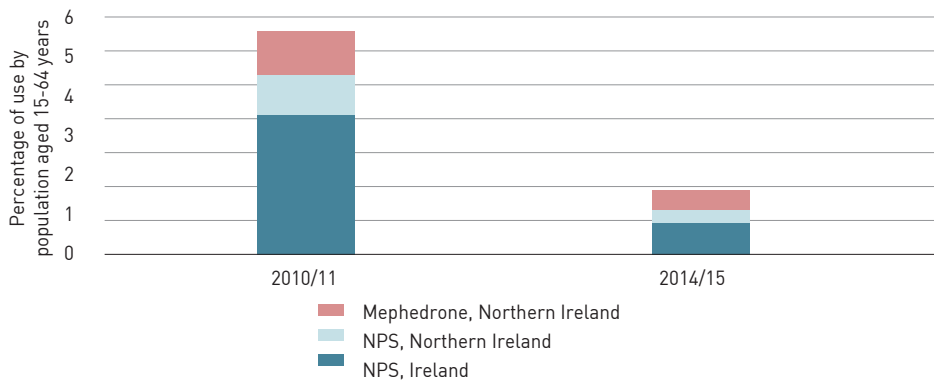
- UNODC에 따르면, ATS는 2015년 그 남용자 수가 전 세계 약 3,700만 명에 이르고 대마 다음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마약류로, 특히 메트암페타민은 많은 지역에서 남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엑스터시 남용자 수는 약 2,200만 명이고,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지역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음
- NPS는 대마, 코카인, 헤로인, LSD, MDMA, 메트암페타민 같은 통제물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남용물질로, 2016년 12월까지 보고된 NPS의 약리학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 물질들 가운데 대다수는 합성대마, 각성제, 전형적인 환각제로 밝혀짐
- 유럽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NPS의 남용은 주로 20세 가량의 젊은 층에서 이루어지고, 영국과 웨일즈에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전체 성인인구(16~59세)의 남용률은 0.7%이나, 젊은층(16~24세)의 남용률은 2.6%로 가장 높음
- 2014년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의 NPS 남용자 대다수가 젊은 층으로, 25세 이하가 NPS 남용률의 절반을 차지하고, 20세 이하가 13%를 차지함
- 최근, 미국에서 중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합성대마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2학년 학생들의 합성 대마 남용률은 2011년 11.4%에서 2016년 3.5%로 감소함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성인인구(15~64세)의 NPS 남용률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북아일랜드에서 메페드론(mephedrone) 남용률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1.1%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0.5%로 감소함

[그림 2-10] 미국 12학년의 대마 및 합성대마 남용률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그림 2-11]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NPS 및 메페드론 남용률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 헝가리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류 투약자 167명 가운데 92명이 HIV 양성반응을 보였고, 가장 많이 남용한 마약류는 펜테드론(pentedrone)으로 48%를 점유함
- 2015년 아일랜드에서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류 투약자들 가운데 HIV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명 ‘chaotic’이라고 불리는 합성캐치논인 α -PVP 투약과 관련이 있음

3. 생산 동향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ATS는 합성마약류로 사실상 어느 곳에서나 제조가 가능하며, 헤로인, 코카인처럼 식물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식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음
- 소량의 ATS는 간단한 제조법(Recipe)을 이용해 소위 ‘키친 랩(Kitchen Lab)’이라 불리는 작은 밀조시설에서 만들 수 있으나, 대량의 ATS는 복잡한 밀조장비를 갖춘 시설에서 원료물질과 합성공정이 필요함
- ATS 시장에 대한 분석은 한정된 제조 관련 정보로 인해 전 세계 ATS 제조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같이 주요 시장의 데이터도 제한적이며, 게다가 전통적인 ATS의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하는 NPS의 등장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짐
-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 메트암페타민은 크리스탈 메트암페타민과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으로 나뉘고, 그 중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은 ‘야바(Yaba)’로 불리며, 순도가 낮고 다양한 외형과 색을 띠는데, 주로 메콩강 유역에서 제조되며, 크리스탈 메트암페타민은 위 지역에서 대량 제조되어 다른 지역으로 밀매되고 있음
- 암페타민은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서 제조되어 왔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암페타민 제조공장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에서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대규모 암페타민 제조공장 중 벨기에에서 14개, 독일에서 13개가 각각 폐쇄되었음
- 최근 엑스터시는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1)고용량 MDMA의 정제형 엑스터시, 2)순도가 높은 MDMA가 함유된 가루형 엑스터시, 3) MDMA 성분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정제형 엑스터시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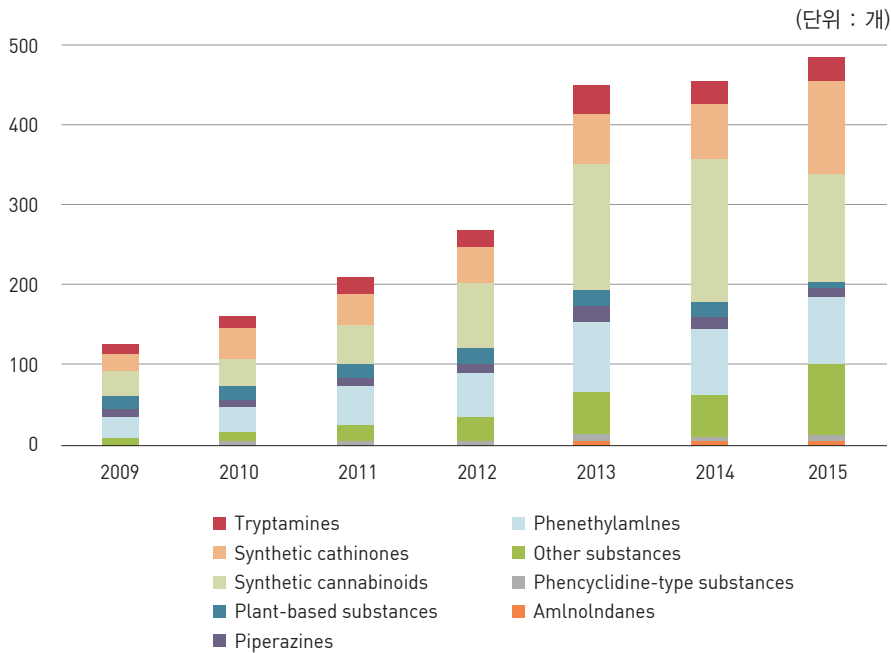
- 다양한 종류의 엑스터시가 출현한 것은 MDMA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다른 물질이 MDMA를 대체했기 때문이며, 2013년 압수된 정제형 엑스터시에는 MDMA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거의 없고 NPS와 같은 비(非)통제 물질이 함유됨
- 최근 고용량 MDMA 함유 정제형 엑스터시가 유럽지역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EMCDDA⁶⁾에 따르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대량의 불법 MDMA 제조시설이 적발되었고, MDMA가 다량 함유된 정제형 엑스터시는 특유의 모양과 로고를 사용하며 유럽에서 판매됨

나. 신종 향정물질(NPS)

- UNODC가 NPS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매년 보고된 NPS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5년까지 거의 500개에 달함
- 2015년에 전 세계에서 새롭게 발견된 NPS의 수는 2014년 66개가 보고된 것에 비해 2/3 증가한 100개가 보고됨
-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초기에 보고된 NPS는 대부분 합성대마였으나, 2015년에는 합성캐치논과 합성마약이 각각 20개와 21개가 보고되었고, 펜타닐 파생물질인 합성아편유사제와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진정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물질 21개가 보고됨
- 반면, NPS는 사라지기도 하여 2013년 이후로 약 60개의 NPS가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N-benzyl-1-phenylethylamine (벤질 페닐에틸아민)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유럽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 6개 국가에서 보고되었으나 그 이후 더 이상 UNODC에 보고된 적이 없음

6) 유럽마약감시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Lisbon

[그림 2-12] 2009년~2015년 보고된 NPS의 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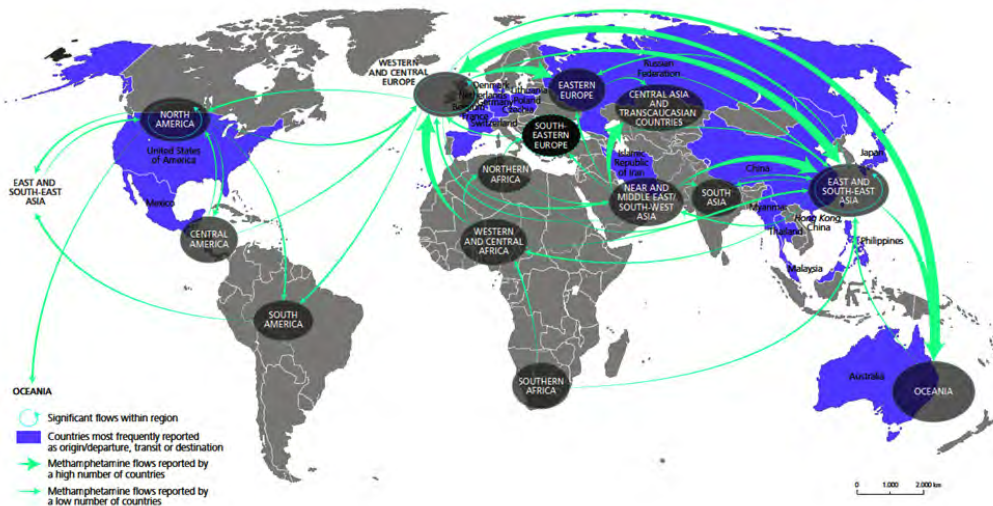
4. 밀매 동향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1)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메트암페타민은 중·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중·서유럽 지역을 포함해 다수의 지역에서 밀매되고 있으며, 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전 세계 메트암페타민 밀매의 수렁지인 반면,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서유럽 지역은 경유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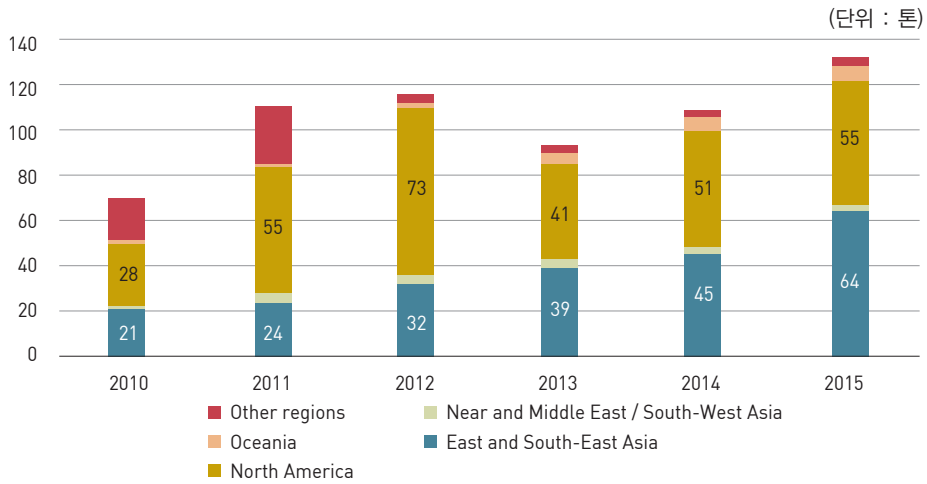
[그림 2-13] 세계 메트암페타민 이동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 2015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은 메트암페타민이 가장 많이 압수된 지역으로 처음으로 북미 지역의 압수량을 뛰어 넘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메트암페타민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메트암페타민을 감시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단속역량이 개선된 것도 주요 원인임
- 오세아니아 지역은 2012년 이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의 급격한 증가가 기록되었는데, 뉴질랜드의 메트암페타민의 압수량은 2013년 15kg에서 2015년 400kg으로 증가하였고, 호주는 같은 기간 2.3톤에서 5.4톤으로 증가함
- 북미 지역은 2015년을 제외하고 메트암페타민 압수량 중 가장 많은 압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성인 인구의 메트암페타민 남용률이 2012년 0.5%에서 2015년 0.8%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메트암페타민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4] 2010년~2015년 지역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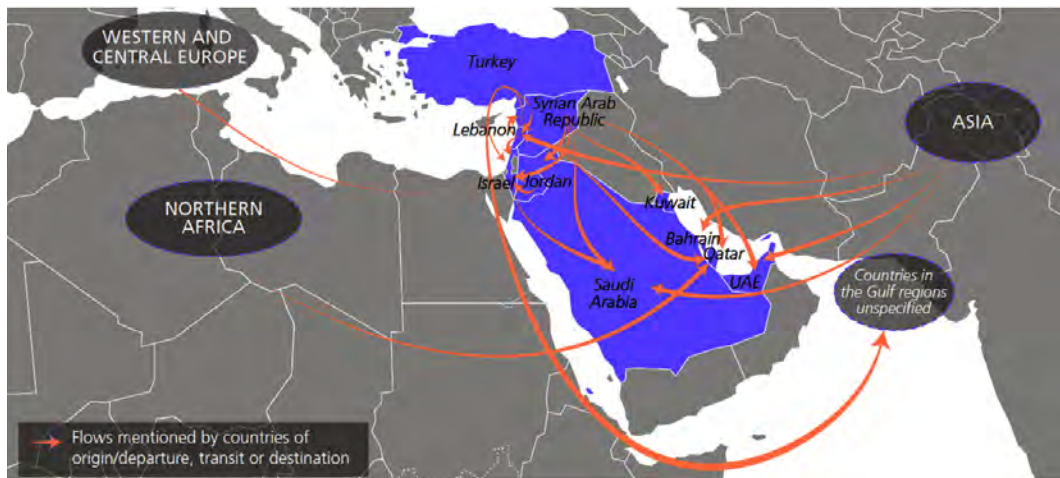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2) 암페타민(Amphetamine)

- 암페타민은 중동 지역에서 널리 밀매되고 있는데, 2013년과 2014년에 주로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로 밀매되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중동 지역으로 밀매되고 있어 새로운 경로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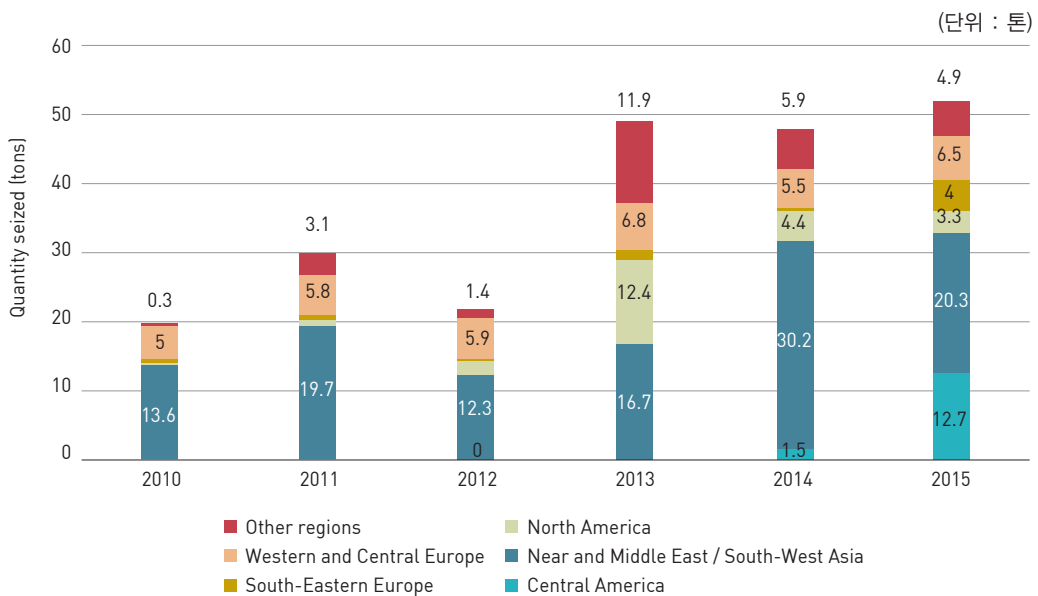
[그림 2-15] 세계 암페타민 이동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 최근 중동 지역의 영향으로 남·동유럽 지역에서 암페타민의 압수량이 대폭 증가하여 2015년 전 세계 암페타민 압수량의 8%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0.5톤에서 2015년 4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터키에서 암페타민 압수량이 2014년 0.2톤에서 2015년 3.8톤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중앙아메리카 지역도 암페타민 압수량이 대폭 증가하여 2015년 전 세계 암페타민 압수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1.5톤에서 2015년 12.7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테말라에서 암페타민 제조공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암페타민 압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그림 2-16] 2010년~2015년 지역별 암페타민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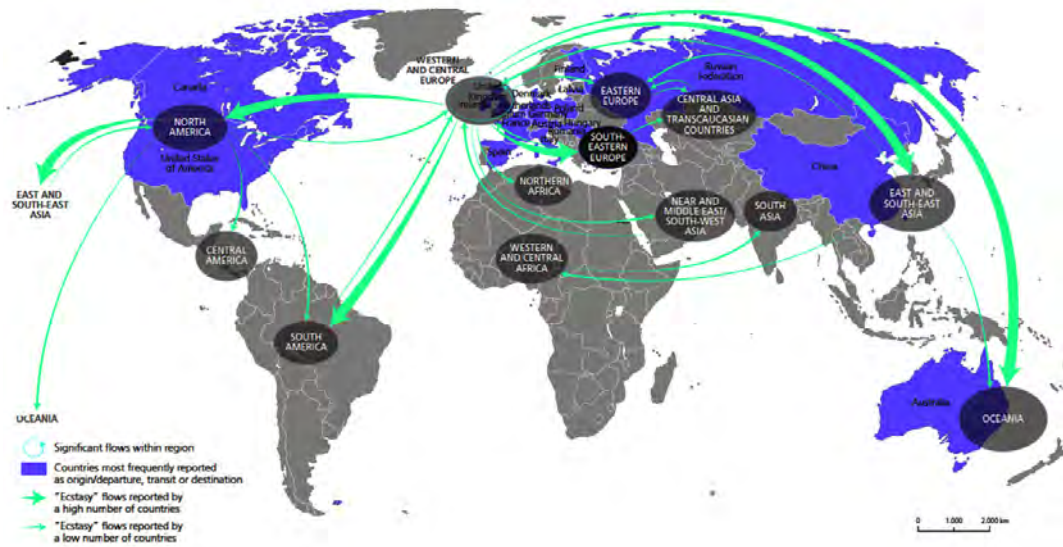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3) 엑스터시(Ecstasy)

-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엑스터시는 주로 중·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 밀수입되고 있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에는 유럽 지역에서 직접 또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경유하여 밀수입되고 있음

[그림 2-17] 세계 암페타민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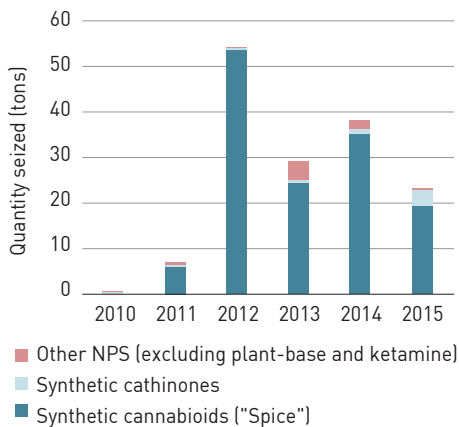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 2010년 이후 매년 엑스터시의 압수량은 평균적으로 약 4~5톤이었으나, 2014년 호주에서 압수량이 대폭 증가하여 9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가, 2015년에는 유럽 지역에서 4톤, 아시아 및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2톤을 압수하여 6톤으로 감소하였음
- 북미 지역은 엑스터시 밀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캐나다에서 밀매된 MDMA 압수 건수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513%가 증가하였음
-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호주는 2014년 엑스터시 약 4톤을 압수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 700kg을 압수하였고, 뉴질랜드는 2010년 이후 5~50kg 사이의 양을 압수하고 있음
-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중, 미얀마는 2014년 말레이시아로 밀매하려던 엑스터시 알약 240만 정을 압수하였고, 말레이시아는 2015년에 엑스터시 알약 408,000정을 압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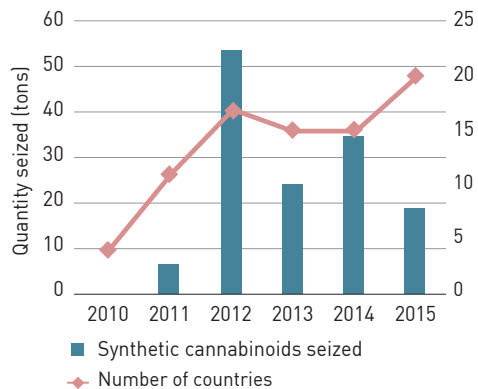
나. 신종 향정물질(NPS)

- NPS 압수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국제적으로 통제되지 않아 압수되지 않거나 UNODC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임
- 2010년은 NPS 압수량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 2011년 이후 NPS 중 합성대마가 전 세계 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성캐치논의 압수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합성대마의 압수량은 연간 변동의 차이가 심하지만 합성대마의 압수를 보고하는 국가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 18개 국에 달함
- 2014년 유럽연합 국가 조기경고시스템⁷⁾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NPS 전체 압수 약 50,000건 중 합성대마가 약 30,000건, 1.3톤 이상이 압수됨

[그림 2-18] 세계 NPS 압수량



[그림 2-19] 세계 합성대마 압수량 및 압수 국가 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7) European Union Early Warning System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가. 메트암페타민 밀조 추세

-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요 메트암페타민 밀조국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수입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서 메트암페타민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제조법이 인터넷으로 유포됨에 따라 소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조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① 2010년 화학박사가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② 2012년에는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③ 2013년에는 호주인이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일반인이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④ 2015년에는 조직폭력배가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⑤ 2016년에는 일반인이 부친 운영의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2010년 이래 총 21건)

나. 향정사범 추세(메트암페타민 등 ATS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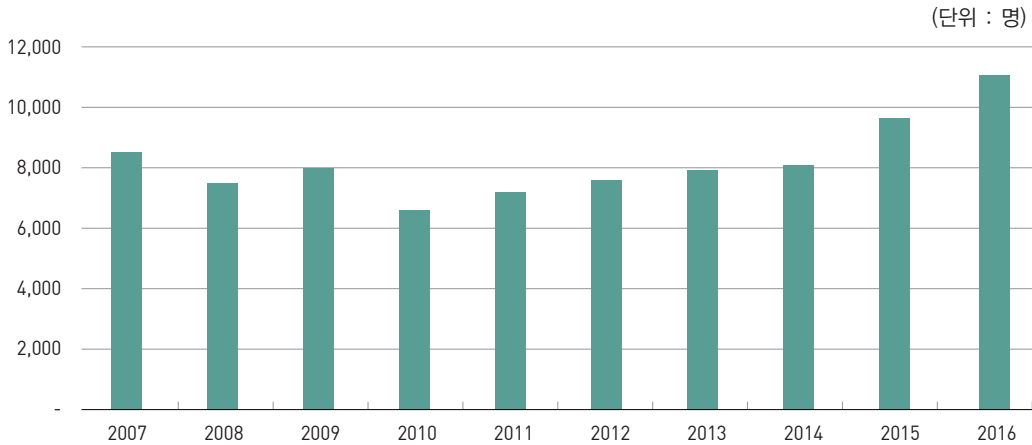
[표 2-8]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추세

(단위 : 명)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단속인원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8,121	9,624	11,396
증감률(%)	41.9	-12.5	6.8	-15.0	6.7	5.6	3.6	2.8	18.5	18.4

- 향정사범은 2011년도부터 증가 추세로 2016년에는 향정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80.1%를 점유, 메트암페타민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2-20] 향정사범 추세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사건

- 2008. 5. 중국인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부산지검)
- 2008. 10.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수원지검)
- 2008. 12.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카타르로부터 필로폰 3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로부터 필로폰 약 856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로부터 필로폰 1kg과 1.7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1.경 대만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2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2.경 일본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액자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3.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운동화 두 켤레 밑창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6.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3.경 중국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87.9g을 책자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8.경 루마니아인이 가나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가방 옆면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1.경 싱가포르인 3명이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영양갱과 비누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1. 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1. 3.경 루마니아인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1.1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4.경 우리 국민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3.1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6.경 미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2.6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9.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3.경 우리 국민이 필리핀으로부터 필로폰 1.4kg을 골프백 밑 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7.경 우리 국민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캐리어백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2. 8.경 영국인이 피지로부터 필로폰 2.5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10.경 우리 국민 6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7.4kg을 화물선에 은닉하여 포항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2. 11.경 독일인이 케냐로부터 필로폰 1.8kg을 배낭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3. 1.경 우리 국민 3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2kg을 신발 6켤레에 은닉하여 청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3. 3.경 호주인이 필로폰 2kg을 허벅지 부위에 반창고로 붙여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3.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1.3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성남지청)
- 2013. 4.경 영국인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4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5.경 일본인 2명이 마카오로부터 필로폰 6.24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8.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74g을 기계부품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3. 10.경 독일인이 프랑스로부터 필로폰 3kg을 여행용가방 밑바닥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1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5.7kg을 대형 커피머신 2대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05kg을 아이스박스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3.경 우리 국민 3명이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15.1kg을 라벨링 머신기계 내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전주지검)
- 2014.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5kg을 핸드백 9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6.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6.1kg을 배낭 등에 은닉하여 거제시 고현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4. 7.경 일본인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6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4. 10.경 우리 국민 4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3.7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1.경 대만인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복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3.경 말레이시아인 2명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4.1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4.경 우리 국민 3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6kg과 발기부전치료제 약 70만정을 컨테이너 안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평택지청)
- 2015. 8.경 우리 국민 2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8kg을 선박 조리장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10.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805g을 화물로 가장하여 인천항으로 선박 배송 후 인천 부평구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5. 11.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대구지검)
- 2015. 12.경 미성년자인 우리국민 2명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496g을 복대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6. 1.경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1,041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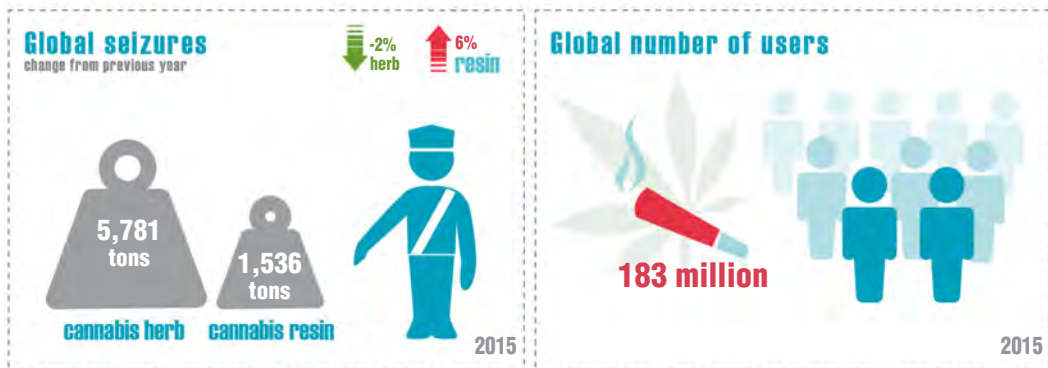
- 2016. 3.경 캄보디아인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486.1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수원지검)
- 2016. 3.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606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6. 4.경 인도인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735.04g을 백팩 등반이 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6. 6.경 탈북자 출신 등 3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507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 2016. 6.경 우리 국민과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686.6g을 안마의자 속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6. 10.경 의정부 주둔 미군 2명이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4,122g을 밀수입 (의정부지검)
- 2016. 11.경 「말레이시아인 2명 및 필리핀인 1명(국제마약조직원)」과 「대만인 2명(국제마약 유통책)」이 대만으로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2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6. 11.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5,044.46g을 밀수입 (울산지검)
- 2016. 12.경 평택 주둔 미군 2명이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4.1kg을 밀수입 (평택지청)

제4절 대 마⁸⁾

1. 전 세계 통계 개요

- 최근 전 세계 대마 소비는 안정화 단계로 2015년 전 세계 성인인구의 3.8%인 1억 8,300만 명이 대마를 경험해본 적이 있으며, 1998년부터 이 비율은 안정화 추세임
- 2015년 대마초 압수량은 5,781톤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고, 대마수지 압수량은 1,536톤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음

[그림 2-21] 대마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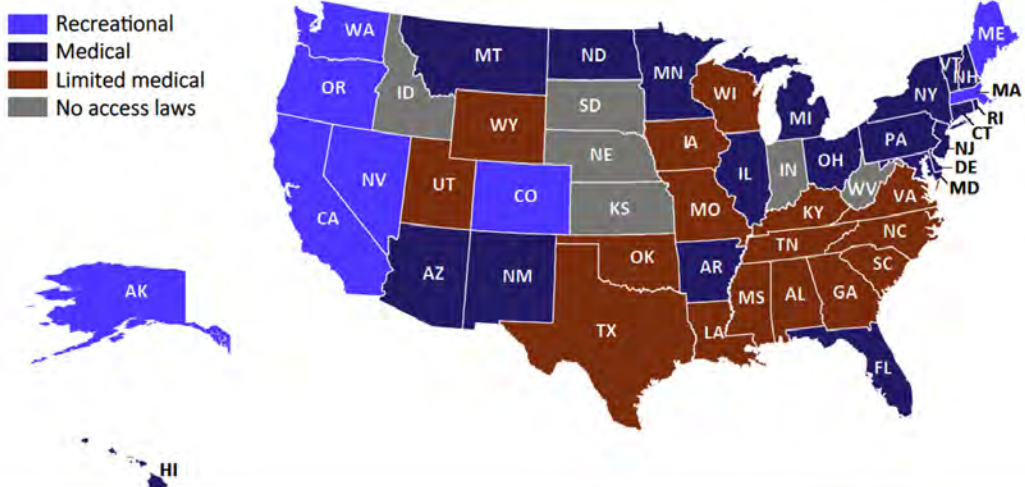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 미국 내 대마는 연방차원에서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의 Schedule 1로 금지되어 있으나, 대부분 주에서는 관할구역 내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2016년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 주(州)에서 비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하여 기존의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레곤 주(州) 등 4개 지역과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 C.)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에서 비의료 목적 대마의 생산, 유통, 판매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대마사용이 합법화되었음

8) UNODC, "MARKET ANALYSIS OF PLANT-BASED DRUGS", WORLD DRUG REPORT, vol.3, 2017

[그림 2-22] 미국 대마 사용 합법화 현황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2. 소비(남용) 동향

- 대마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약류이고, 2015년 대마 남용자는 1억 8,300만 명으로 전년(1억 8,250만 명) 대비 소폭 증가한 것임
- UNODC에 따르면, 미주 지역에서 대마 남용자 수가 2005년 전 세계 성인인구의 6.5%인 3,760만 명에서 2015년 전 세계 성인인구의 7.5%인 4,920만 명으로 증가함
- 오세아니아 지역인 호주에서 14세 이상 인구의 대마 남용률은 2007년 9.1%에서 2013년 10.2%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1998년 보고된 17.9% 보다는 낮은 수치임
-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대마 남용률은 전 세계 성인인구의 6.6%로 안정화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별로 보면 대마 남용률이 높은 독일, 스페인, 영국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덴마크와 프랑스는 대마 남용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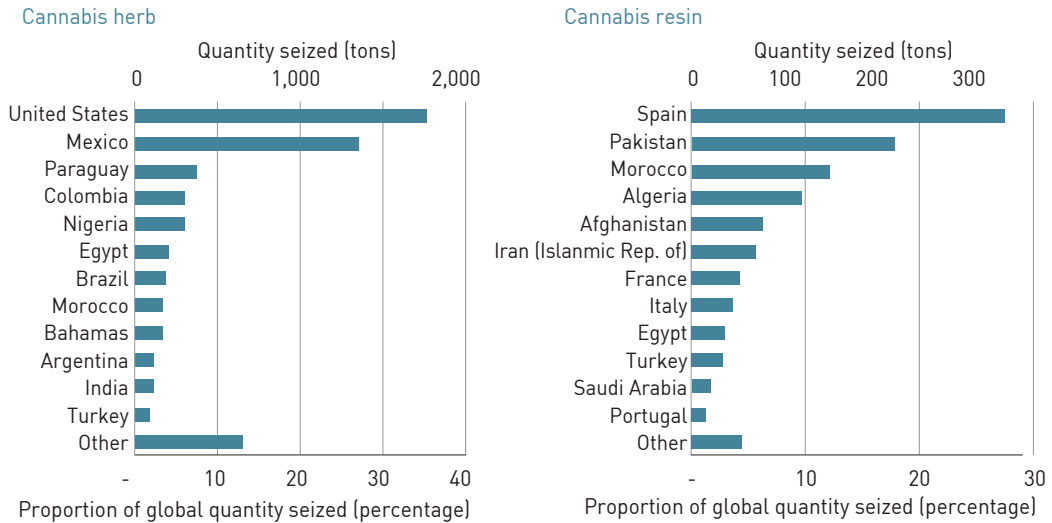
3. 생산 동향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전 세계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135개 국가에서 대마 재배가 보고되었지만, 체계적인 측정방식의 부재로 대마 재배 및 생산의 범위와 동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마초의 주요 공급국으로,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은 콜롬비아, 파라과이, 자메이카이고, 아프리카 지역은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가나, 스와질랜드이고, 아시아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라오스, 레바논, 인도, 네팔이고, 유럽 지역은 네덜란드와 알바니아임
- 북미 지역에서 대마초의 주요 공급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이고, 미국은 대마초를 가장 많이 생산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대마초를 소비하고 있음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대마 재배지역을 가장 많이 제거한 지역은 미주 지역이고,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순임

4. 밀매 동향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전 세계 대마초의 압수량은 약 6,000톤이고, 대마수지의 압수량은 약 1,300톤임
- 2015년 대마초가 가장 많이 압수된 지역은 미국, 멕시코이고, 그 다음으로 파라과이, 콜롬비아, 나이지리아이며, 대마수지가 가장 많이 압수된 지역은 스페인, 파키스탄, 모로코이고,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임

[그림 2-23] 2010년~2015년 지역별 평균적인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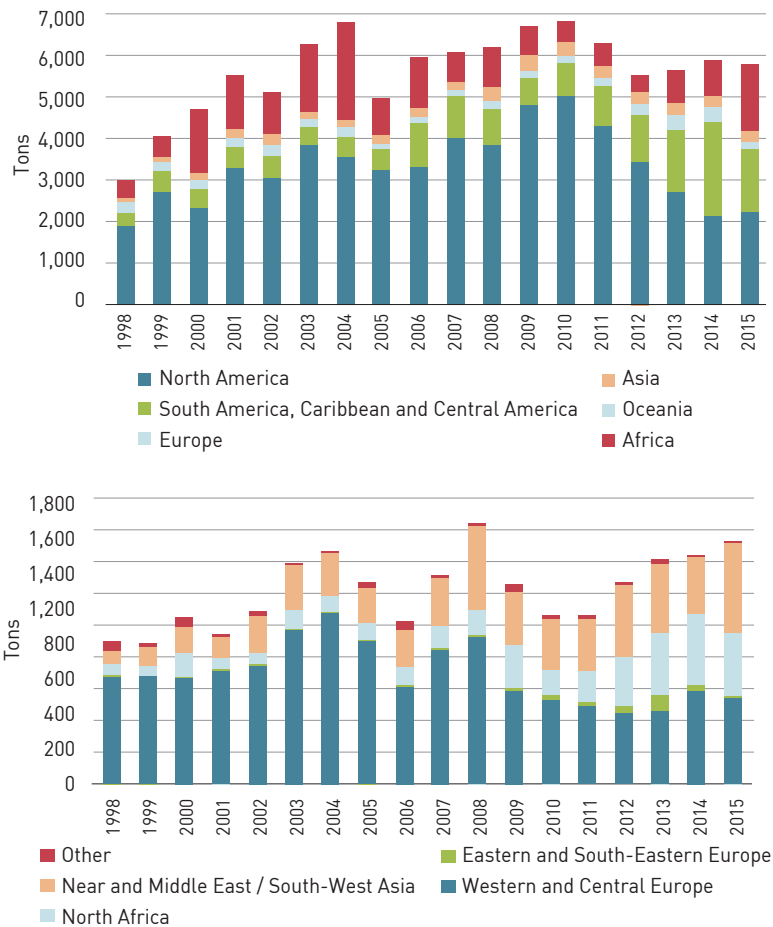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 2015년 미주 지역의 대마초 압수량이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은 28%, 아시아 지역은 5%, 유럽 지역은 3%, 오세아니아 지역은 0.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북미 지역은 2015년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2010년 기록했던 최대 압수량에 비해 55% 감소한 것으로 그 이유는 멕시코에서의 대마초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미국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 이후 단속이 줄었기 때문임
- 반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에서의 대마초 압수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은 안정화 단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대마수지가 압수된 지역은 중·서유럽 지역이었으나 2015년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의 대마수지 압수량이 전 세계 대마수지 압수량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중·서유럽 지역은 35%, 북아프리카 지역은 26%를 각각 차지함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전 세계 대마수지의 압수량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2015년 대마수지 압수량이 2010년 대비 2배가 증가하였고,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의 2015년 대마수지 압수량이 2010년 대비 78%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반면, 1998년 유럽의 대마수지 압수량은 전 세계 압수량의 77%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53%까지 감소하였으며 2015년 다시 35%까지 감소함

[그림 2-24] 1998년~2014년 지역별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5. 국내 대마 관련 추세

[표 2-9]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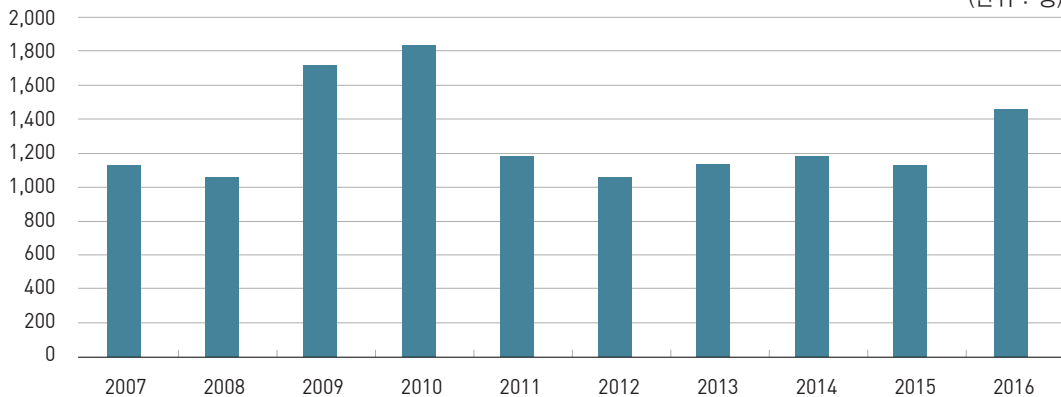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단속인원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1,187	1,139	1,435
증감율(%)	40.1	-10.7	63.8	7.3	-35.3	-12.4	13.0	0.8	-4.0	26.0

- 1996년에서 2009년 사이 대마 대량 밀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는 바, 주요사례로는 ①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2회 대마 7kg, 8kg 등 밀수입, ②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 3.5kg 밀수입, ③ 2006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 5kg 밀수입, ④ 2009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백인 여성을 지게꾼으로 이용하여 대마 4.3kg 밀수입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이 대마 6kg 밀수입한 사례 등이 있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대량 밀수 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용 목적의 소규모 대마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림 2-25] 대마사범 추세

(단위 : 명)



주요 대마 밀수사건

- 2007. 2.경 우리 국민이 태국 방콕으로부터 대마 200g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한 뒤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포항지청)
- 2008. 1.경 일본인이 태국 방콕으로부터 대마 농축액인 해시시⁹⁾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몸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3.경 러시아인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부터 해시시오일¹⁰⁾ 약 86.65g을 화장품통 안에 은닉하여 속초항으로 밀수입 (속초지청)
- 2008.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1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7.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약 114.04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제주지검)
- 2009. 1.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부터 대마 948g 및 대마수지 12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각5.1kg, 5.1kg을 나무조각품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6.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¹¹⁾ 60개(약 1,497g)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창원지검)

9)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10) Hashish Oil은 해시시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시시 보다 2~3배 정도 강함

11) weed cookie는 대마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로 만든 것임

-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약 4.3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약 6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가 함유된 대마쿠키 802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경 캐나다인이 캐나다로부터 대마강정 147.9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200.83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2.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171.5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8.경 캐나다인이 캐나다로부터 대마 약 92.5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7.경과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505.65g을 미군사우편으로 밀수입 (수원지검)
- 2012. 8.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853.09g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 (진주지청)
- 2012. 9.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944.57g을 미군사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3. 5.경 러시아인이 러시아로부터 대마 946g 및 해시시 55g을 선실 내에 은닉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3. 7.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약 837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10.경 네덜란드인이 네덜란드로부터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의정부지검)
- 2014.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445.41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5. 3.경 우리 국민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대마 약 35.02g, MDMA 3.39g, 사일로신 20.47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5.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대마 약 4.5g을 팬티 속에 은닉하여 대구 공항으로 밀수입 (대구지검)
- 2015. 6.경 부산세관이 부산항에 정박한 캐나다발 대만행 선박(선박국적은 파나마)을 수색하여 향신료로 위장한 대마 약 9kg을 적발 (부산지검)
- 2015. 12.경 이집트인이 이집트로부터 대마 16.37g 및 대마수지 23.21g을 국제특송 화물로 밀수입 (포항지청)
- 2016. 2.경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로부터 대마 863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2016. 3.경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로부터 대마 438.5g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